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6년 학교숲 조성사업 협약 체결

부안군은 2026년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안 초등학교, 변산중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숲과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생태 학습 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실시계획을 마치고 상반기 내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총 2억원(도비 50%, 군비 50%)이 투입되어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관내 학교 43개소 중 26개소(초등학교 12, 중학교 2, 고등학교 2)에 숲조성을 완료한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78곳 지도·점검

정읍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78곳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휴 기간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대기, 폐수,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관리 실태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기 및 폐수 배출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실태 △오염물질 무단 방류 및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설 연휴 전후인 2월 9일부터 24일까지를 '환경오염 특별 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한다. 아울러 산업단지과 주변 하천, 공장 밀집 지역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글로벌 청년 겨울관광 캠프 호응

정읍시, 유휴 농업 근로자 기숙사 활용... 체류형 관광 인프라 전환 김밥·향낭 만들기와 우도농악·씨름 등 전통문화 체험 '큰 인기'

정읍시가 겨울철 비어 있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 등 80명을 초청한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가 참신한 기획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입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의 열띤 참여 속에 순항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캠프는 오는 2월 14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2주씩 2개 기수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수마다 외국인 유학생 30명과 한국인 서포터즈 10명 등 총 40명, 전체 80명이 참여해 정읍에 머물며 지역의 매력을 체험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의 재발견'이다. 시는 농업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지 않아 비어 있는 겨울철 공공 기숙사를 속속로 활용해 유휴 공공시설을 체류형 관광의 핵심 인프라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겨울철



관광 수요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를 유휴 시설 활용으로 풀이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그램 또한 단순 방문이 아닌 깊이 있는 체험 위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장금리에서 김밥과 향낭을 만들고 지역 딸기 농장에서 수확 체험과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하며 정읍의 겨울 농촌을 만끽했다. 또한, 총력사 탐방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지난 22일 진행된 우도농악과 씨름 체험은 현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한국 전통 예술의 역동적인 율림과 씨름의 생동감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박수와 웃음으로 화답했다. 시는 남은 기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번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글로벌 홍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의 7가지 보물과 문화예술의 꽃' 활짝

고창문화도시센터, '백화제방 百花薔放' 컨퍼런스 30일 개최 고창의 치유문화정체성 확립·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로드맵 수립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오는 30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관내 문화예술 상생을 위한 '신년 문화예술 컨퍼런스 百花薔放(백화제방)'을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고창의 7가지 보물과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이 함께 피어날라는 의미를 담은 2026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고창만의 '치유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은 △타 문화도시 및 지자체 문화예술 기획자의 우수 사례 발표 △고창문화관광재단·고창문화도시센터의 2025년 성과 공유 △고창군 생활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고창문화도시센터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수렴된 문화예술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2026년 고창문화관광재단 및 고창문화도시센터 사업 추진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고창만의 견고한 '자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또한, 전문가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심도 있는 토론 형성을 통해 학술 행사를 넘어선 전략적 행보에 나선다. 고창이 보유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광역 단위로 확산시키고, 타 지자체와의 유연한 연대를 통해 문화적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며 관련 문의는 고창문화도시센터(070-4175-6829)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13개 읍면 방문 희망소통대화 본격 추진

2026년 결실장래(結實蒼來) 슬로건 공유·군정 주요 방향 직접 설명 등

부안군이 2026년 군정 운영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결실장래(結實蒼來),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희망소통대화는 2026년 군정 슬로건인 '결실장래(結實蒼來)'의 의미를 군민과 함께 나누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군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군정 주요 방향을 직접 설명·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은 이번 소통대화를 통해 부

안 대도약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부안형 비빔연금 Δ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안 철도시대(T자형 철도망 구축) 등을 중심으로 향후 군정 운영 비전과 중점 과제를 군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희망소통대화는 1월 26일 부안읍을 시작으로, 27일 주산면·동진면, 28일 행안면·출포면, 29일 계화면·변산면, 2월 2일 백산면, 3일 상서면·하서면, 4일 보안면·진서면, 5일 위도면을 차례로 방문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각 읍·면 방문 시에는 사회단체장과 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읍·면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군정비전 설명이 이어진다. 이후 군민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이 운영된다. 아울러 행사 이후에는 경로당 등 생활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의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흔들림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비율 70%로 확대

부안군,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가정까지 지원

부안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을 70%로 확대하고 2026년 신규 채용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70%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양육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부안군은 1월 22일 온가족센

터에서 2026년 신규채용 아이돌보미 36명을 대상으로 1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아이돌보미의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방향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돌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항과 직무 스트레스 완화,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와 함께 신규 아이돌보미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높이는 등 맞춤형 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애육원, 아이들 실내놀이터 '드림플레이스' 개소

정읍애육원이 지난 23일 입소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VR 기기와 코인노래방 등을 갖춘 복합 실내놀이 공간 '드림플레이스(Dream Place)'의 문을 열었다. 이날 정읍애육원 2층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화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등 지역 주요 내빈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정태영 총장, HD현대 류근찬 부사장 등 약 70여 명

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드림플레이스'는 약 105㎡(32평) 규모로 조성된 아동 전용 복합 실내놀이 공간이다. 내부에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코인노래방, 오락 놀이 기기, VR(가상현실) 체험 기기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번 사업은 국제 아동 권리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가 주관하고, HD현대1%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추진

됐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쳤으며, 총사업비는 1억 800만원(현대1%나눔재단 700만원, 애육원 자체 모금 3800만원)이 투입됐다. 행사는 정읍애육원 가족함련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소개 및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